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사람은 문화적 존재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6-25절

Tag: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0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21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4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벧전1:16-25)

사람은 무엇보다도 문화적 존재이다.

사람에게는 혈통이 아주 중요한데, 그러나 혈통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화이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독특한 성질이나 개성이 중요한데, 그러나 그

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화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혈통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수궁하는 것일까? 경험상 그렇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은 경험상 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사실 이 말도 엄밀히 따진다면, 그 아버지의 문화를 그 아들이 배웠다는 것이다. 즉, 그 집안의 문화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개성도 그렇다. 분명히 개성은 독특하지만, 그 개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그 사회의 문화를 습득하면서 가능해진다. 만약 그 사람의 성격이 외향적이고, 그래서 사교성이 뛰어나더라도 그 사회가 지니고 있는 문화 안에서 그 사교성이 표현된다.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개신교(christianity)가 지니고 있는 문화적 독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보통 개신교 이외의 종교들은 문화적으로 고립되든지 혼합된다. 고립되는 종교는 이슬람교와 유대교가 대표적이다. 혼합되는 종교는 힌두교와 불교, 유교, 무교 등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종교는 사실 유, 불, 무의 혼합문화이다.

교리적으로 가장 사악한 종교는 불교이고, 윤리적으로 가장 사악한 종교는 이슬람교이다. 왜냐하면 불교는 사람을 신이 되게 하려는 억지스런 종교이고,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미워하며 죽이고 싶어하도록 유도하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다른 종교와 문화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개신교는 하나님나라의 문화이다. 특히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한다. 이 말은 기존의 정치와 문화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시위한다. 항의한다. 기존의 정치문화에 대해서.) 개신교는 고립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는다. 그래서 독특한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다.

왜 이렇게 다른 종교들과는 다른 문화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개신교 문화의 핵심에는 성령운동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문화보다 매우 역동적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판하려는 입장에서는 독선적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심지어 제국주의적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한다.(그러나 제국주의적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다. 개신교 국가들의 식민지 정책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지, 개신교 자체에 이 표현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제국주의자들의 폭력 앞에 제동을 거는 자들이 개신교 선교사들이었다.) 그리고 독선적이라는 표현은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유일신 사상이 있는 모든 종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흔히들 카톨릭은 포용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꿈수에 지나지 않고, 카톨릭 자신이 가장 큰 형님이라고 치고 다른 종교들이 하급종교라는 의미에서의 포용이니 사실상 독선적인 것은 마찬가지인 셈이다. 힌두교는 그 자체가 다신교이니 기독교가 독선적이든 포용적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기독교가 회개를 강조하면서 불신지옥을 외친 적이 있으니 꼭 해해서 들으면 너는 회개하지 않았으니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한 셈이니 기분이 나쁠수도 있지만, 사실로 말하면 믿고 천국에 가라는 의미이니 복음이고, 강권하여 전도한다고 해도 협박이나 유괴나 사기나 위협이(이단이나 이슬람처럼) 아니기 때문에 결코 자유의지가 손상되지 않는다는. 또 한편으로는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는 생각은 온 인류가 갖는 공통된 생각이기 때문에 굳이 틀린 말도 아니다.

또한 내 영혼이 죄를 짓지 않도록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돕겠다는 것이니 따지고 보면 나를 위한 것이다. 즉, 개신교의 전도는 아무리 나쁘게 표현해도 불법이나 해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단계 사기나, 도박이나, 상품강매 등 사회적인 해가 아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회개를 외칠 때 회개하거나 죄책감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고 죄책감으로 기분이 나빠진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핍박하는 경우가 있다. 둘 중 하나이다.

또 한국에서는 급조된 교회 리더양성이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 회개가 덜된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준다든지,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목사 안수를 준다든지, 심지어는 범죄자인데 회개했다고 신학교에 보내고 목사 안수를 주어서 목회를 하게 하였다. 이런 무늬만 개신교인 사람들이 양산되다 보니 이것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결과가 되었다.

결국 복음전파와 영혼구령이 너무 큰 이슈가 되고 지상명령이 되고, 교단간의 경쟁이 된 나머지 진정한 성령충만과는 거리가 생겼고, 교단간의 협력을 이루어내지 못하였고, 결국 한국기독교는 독특한 율법주의에 빠지는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항상 그랬듯이 개신교는 성령운동으로 스스로 새롭게 되었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왔다. 이제 우리 개신교는 다시금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성령운동문화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교회를 새롭게 하고 영화롭게 하며, 그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선시킬 것이며, 화합하게 하며, 치유하며, 회복시키며, 부강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 개신교가 여기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때 가능하게 된다.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무엇보다 먼저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회개운동은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하고 강력한 개혁운동이다. 잘못을 깨달아야 고칠 수

있다. 우리는 더 이상 헬조선이라고 원망하지 말고 대한민국을 사랑하자. 우리나라는 헬조선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양극화가 큰 나라가 아니다. (택배 기사도 평균 월수입이 400, 많게는 1000이라고 한다.)

복지를 더 크게 확대하지 못해서 안달난 나라이고, 건강보험은 세계적 수준이다. (미국 발치 400불, 40만원. 맹장수술2천만, 아프면 그냥 죽는 것. 부자 아니고 보험 없으면. 보험없고 가난하면 무조건 병원 소셜워커(사회복지사) 찾아가라. 정부 도움 받지 말고, 최대한 깎고, 분납한다고 하라. 2만불을 한달에 20불씩 갚는 사람도 있다고 함.)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다.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이며, 행복한 나라이다. 세계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고 오고 싶어하는 나라이다. 이 점을 명심하자.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일터에서 거룩해야 한다. 정직해야 하고, 정당해야 하며,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한다. 사장은 직원을, 직원은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열심히 배우고, 겸손해야 한다. 이것이 성령운동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우리는 일을 구원해야 한다. 우리는 회사를 든든히 세워야 한다. 왜냐면 회사는 산업이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수익을 발생시키는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최고의 원전을 만들고 사고제로의 원자로를 건설해야 한다. 우리는 최고의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최고의 반도체와 배터리와 휴대폰과 TV와 가전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과 중국이 치고 나가고 있다. 우리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가성비 가장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cpu나 첨단산업에서는 뒤지지만, 돈 많이 벌 수 있는 것 잘 만든다. 또한 문화적 역량은 세계 최고수준이다. Kpop)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경쟁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세심하

게 배려하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런 일에 개신교인들이 앞장 서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성령운동이다.

17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말씀은 항상 두려움에 떨면서 살라는 뜻은 아니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품지 말아야 할 생각이 있다는 뜻이고, 그런 악한 짓을 하면 앓된다는 두려움을 품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파업을 하면서 회사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거액의 연봉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산업을 망가뜨리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불법노조활동을 회개해야 한다.

사장이나 사용자는 예수를 믿고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명심하고 회사와 사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책임지고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

사장들은 갑질을 회개하고, 욕심을 회개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표심을 잡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소신 없이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들은 부정부패를 회개해야 한다. 대통령은 국민들의 도덕심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교회는 교파주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금 회개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고, 각계각층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먼저 회개해야 한다.

우리는 모두 자리보전에 연연하지 말고, 먼저 앞 다투어 회개해야 한다.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회개는 오직 예수의 피 밖에 없다. 조상의 혈통이 좋아야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다. 천성이 고아야 회개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죄에서 떠나고, 악에서 떠나야 한다. 현실을 직시하고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한국은 살아난다.

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오직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열심을 내서 서로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살자.

23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오직 말씀!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성경: 마가복음 1장

Tag: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가복음 1장 8절.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항상 우리는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야 한다.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가야 한다.